

시민이 만드는 인문학습지도

유투공



어쩌다 클래식

기획 언제든학교 기획단 정경민



0:15

-3:45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Suwon Global Lifelong Learning Center

유투공은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 강의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활동입니다.

강사없이, 원하는 어떤 주제든, 언제 어디서나 열 수 있기에
유투공은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찾아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안전한 대화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한 '나'로 '너'를 만나고, '우리'가 됩니다.

어쩌다 클래식

어떤 장면에서 꼭 나오는 이 음악, 누구의 음악이었을까요?

익숙한 선율 속 낯선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의 (상황에 / 계절에 / 감정에) 잘 어울릴 법한 클래식을 큐레이션 해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와 클래식과의 거리를 가늠해봅시다.

클래식을
언제 들으시나요?

알고 있는
음악가의 이름을 써 봅시다.

연주회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알고 있는
악기의 이름을 써 봅시다.

클래식은
나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안토니오 비발디

1678~1741,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우리에게는 <사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작곡가이지만 바흐, 헨델과 함께 바로크 시대를 이끌며 500여 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서울 지하철 환승 안내 배경 음악으로도 쓰일만큼 우리에게는 음악가이기도 하죠. 비발디의 말년에 대해 ‘사치와 낭비벽이 심해 재산을 탕진하고 객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비발디의 키워드

빨간머리
신부님

바로크
(일그러진
진주)

피에타
음악원

사계





안토니오 비발디

선곡리스트

비발디의 음악을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궁금해지는 것들에 대해 메모해 보세요.



사계 중 <봄> 1악장

사계 중 <가을> 1악장



조화의 영감 제6번 RV356 (8분)

QR 코드를 스캔하여 음악을 들어보세요.



◆
Nulla in mundo pax sincera RV 630



◆
Concerto for Viola & Cello in g minor RV 531
3악장



◆
만들린 협주곡 RV 425
(1악장 3분, 전체 8분)



안토니오 비발디

Beyond the Classic



비발디 사계 - 소네트

봄 - 1악장

봄이 왔다.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새들은 즐겁게 노래를 한다.

시냇물은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속삭이며 흘러가기 시작한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친다.

그러다 폭풍우가 가라앉고, 새들은 다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가을 - 1악장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풍요로운 수확의 즐거움을 축하한다.

술과 더불어 충분히 즐기고, 마을 사람들이 잠이 들면서 축제는 끝난다.



영화 <샤인>

'세상에 참 평화없어라' 삽입됨



안토니오 비발디

Beyond the Classic



베네치아 피에타 음악원 (베네치아의 명물)

비발디는 태어나서 베네치아를 거의 떠나지 않았어요. 17살부터 사제로서 활동을 했지만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미사를 끝까지 집전하지 못했고, 천식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베네치아 피에타 음악원의 음악 선생님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당시 베네치아가 축제와 환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 곳이 피에타 고아원이었는데 그곳의 부속 음악원이었어요. 비발디는 그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500여 곡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곳의 아이들이 비발디가 만든 곡의 첫 연주를 담당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음악원 아이들의 음악 실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나서 일부러 아이를 맡기러 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이에요.

‘바로크 음악’이라는 사조는 당대 사람들이 지어붙인 이름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시대의 음악을 정리하면서 붙인 이름일 텐데요, 왜 ‘바로크’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후의 사람들은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음악들에 어떤 이름을 붙이게 될까요?

요하네스 브람스

1833-1897,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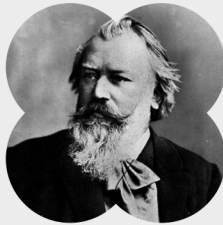
낭만주의 시대를 살면서 고전주의 음악에 진심이어서 낭만주의 작곡가들처럼 화려한 작품을 쓰기 보다는 소박하고 순수한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꼼꼼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초기 작품들을 없애버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브람스를 이야기할 때 클라라와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둘의 사랑은 우정을 넘어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브람스의 키워드

고독하지만
자유롭게

베토벤



클라라

헝가리무곡



요하네스 브람스

선곡리스트

브람스의 음악을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궁금해지는 것들에 대해 메모해 보세요.



헝가리 무곡5번

Hungarian Dance No.5 WoO.1 (3:45)



J.Brahms : Hungarian Dances No.1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제1번



Brahms : Waltz No.15 In Ab Major, Op 39 (1:56)



◆
브람스, 교향곡 3번 3악장 op.90 (6:36)



◆
BRAHMS Intermezzo op. 118-2 | 손얼음 (5:51)



◆
정명훈 | 브람스, 교향곡 1번 c단조 Op.68 - 4악장



◆
Brahms Clarinet Quintet in B Minor, Op.115

요하네스 브람스

더 알아보기

◆ 거인의 발자국

브람스는 21살에 처음 교향곡을 작곡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슈만을 처음 만났을 당시, 슈만으로부터 ‘베토벤이 돌아왔다’고 칭찬을 받을만큼 베토벤을 사랑하고 존경해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베토벤에 버금가는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며 첫 번째 교향곡을 완성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완성한 교향곡 1번을 듣고 사람들은 ‘베토벤 교향곡 10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거인의 발자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1악장의 쿵쿵대는 팀파니의 소리가 거인이 걸어오는 소리를 연상시키고, 4악장의 마지막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거인은 누가봐도 베토벤입니다.

◆ BRAHMS AND LISZT (만취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BRAHMS AND LISZ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취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브람스와 리스트 모두 술을 즐겼고, 특히 브람스는 와인과 맥주를 즐겨서 부풀어 오른 뱃살이 턱수염과 함께 브람스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소박한B : 맥주(beer), 뱃살(belly), 턱수염(beard)



요하네스 브람스

더 알아보기



대학축전서곡

브람스는 배 타는 것을 싫어해서 영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줄테니 바다를 건너오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독일의 브레슬라우 대학으로부터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답례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브람스의 곡들은 그의 성격처럼 대부분 진중한 음악들인데 반해 이 곡은 경쾌하고 신나는 선율이 인상적입니다.



낭만주의 (1810~1900, 19세기 음악)

19세기 산업혁명, 중산층의 등장, 후원이나 소속없이 음악회를 열 수 있음
연주자의 이름이 음악사에 언급되기 시작함

Romanz : 12~13세기 기사도의 영웅담, 세속 연애담을 일컫는 말

Romantic : 공상, 모험과 같이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상태나 공상에 대한 동경을 담은 말로 변화함. 개성과 자아의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표현, 피아노의 발달



Beyond the Classic

브람스를 이야기할 때 피아니스트 클라라가 빠지지 않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작곡가 슈만의 부인이죠. 슈만이 클라라와 결혼 후 아내와 7명의 자녀를 두고 일찍 죽게 되자 브람스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클라라와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해요. 호가사들은 그것을 짝사랑이라고도 하는데, 짝사랑의 감정만으로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클라라와 슈만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이 클라라라면, 브람스 같은 남자 또는 사람이 어떠신가요?



클로드 아실 드뷔시

1862~1918, 프랑스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상주의 음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만큼 음악사적으로 독특한 음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고, 미술사조로서의 ‘인상주의’가 그러했던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보다는 느낌과 영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호한 음악으로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뷔시의 키워드

인상주의

바그너

달빛





클로드 아실 드뷔시

선곡리스트

드뷔시의 음악을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궁금해지는 것들에 대해 메모해 보세요.



드뷔시 Bergamasque 3번, 달빛 (5분)



아라베스크(Arabesque) 1번 : 5분

QR 코드를 스캔하여 음악을 들어보세요.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10분)



드뷔시: 세 개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 2악장

QR 코드를 스캔하여 음악을 들어보세요.



클로드 아실 드뷔시

인상주의에 대하여



파도, 카나가와

루앙 대성당 연작, 모네



아, 이 요정들의 모습이 영원하였으면.
그녀들의 얇은 장미빛 살결이,
숲속같이 깊은 잠에 빠진 대기 속에 하늘하늘 떠오른다.

나는 꿈을 사랑하였던가?
내 의혹, 저 끝이 없는 고대의 밤의 성단이 쌓이고 쌓여
종려나무 실가지로 돌아나더니
생시의 무성한 숲이 돼 내게 일깨우니,
오! 끝에 남은 것은 나 혼자 애타게 그린 장미빛 과오.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자.

말라르메, 목신의 오후 중에서



클로드 아실 드뷔시

Beyond the Classic



시각으로 인식하는 색을 어떻게 음악 안으로 들여올 수 있을까요?

물과 하늘은 모두 푸른색을 연상하게 하는데

음악 속에서 그 둘은 어떻게 표현되고 전달될까요?



드뷔시는 인상주의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1685~1750, 독일

50명이 넘는 음악가를 배출한 음악가 집안

평생을 교회의 음악감독으로서 매주 교회 음악을 만들고, 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행사 음악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바쁘게 살았던 음악의 아버지.

다산가로서 20명이 넘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의 교육에도 정성을 쏟을만큼 성실하고 성실한 아버지였다. 실제로 그의 시기를 구분하는 마지막 ‘바이마르 시기’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온 가족이 이주해올 정도로 아이들에 사랑과 관심이 남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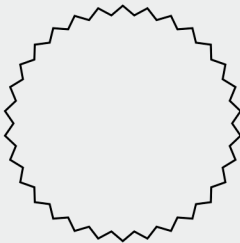
바흐의 키워드



화성의 대부



종교음악



하프시코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선곡리스트

바흐의 음악을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궁금해지는 것들에 대해 메모해 보세요.



◆
첼리스트 양성원 바흐 첼로 무반주 모음곡 1번 프렐류드
bww1007 (3:08)



◆
바흐, 마태수난곡 - 제1부 (자막)
St Matthew Passion, BWV 244 - Part 1 (~7:52)



◆
바흐, 마태수난곡 제2부 (가사 자막)
St Matthew Passion, BWV 244 - Part 2 (1:33:06~)



◆
bwv147 Jesu, Joy of Men's Desiring
(1:10부터 재생, 3분)



◆
하프시코드 협주곡 5번 f단조
BWV 1056 2. Largo 3. Presto



◆
J.S. 바흐: 관현악 모음곡 제3번
BWV 1068 중 아리아(Aria) - g선상의 아리아



◆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Bach:
major, BWV 1048 1st (5:15)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더 알아보기



바이마르 시기 : 교회음악, 오르간 작품

뢰텐 시기: 궁정음악감독, 여흥음악, 교수용 음악(인벤션, 신포니아),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라이프치히 시기 : 4개 교회의 음악감독,
콜레기움 무지쿰의 음악감독(협주곡, 실내악)



마태수난곡 : 수난곡-복음서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의 수난을 다룬 종교음악극

마태수난곡과 요한수난곡이 있는데 마태수난곡이 더 유명

BWV : Bach Werk Verzeichnis(바흐 작품 목록), 장르별 분류



멘델스존에 의한 재발견

영화 <바흐 이전의 침묵>에서 멘델스존이 고기를 찢 종지에서 우연히 바흐의 마태수난곡 악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바흐가 죽고 80여년이 지난 시점에 멘델스존에 의해 재조명 된 것은 사실이다. 멘델스존이 15살 생일에 할머니로부터 바흐의 마태수난곡 악보를 선물 받았고, 스물 세살이 되던 해 초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바흐가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Beyond the Classic



1977년 미국의 무인우주선 보이저2호가 발사되었을 때, 우주선 안에 지구의 문명을 알리는 다양한 자료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음악 27곡이 담겨 있었고, 그 중 3곡이 바흐의 음악이었다고 해요. 바흐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대한 작품 수에 주목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력’의 요소 중에 ‘유창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유창한 분야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01

어쩌다 클래식

기획 정경민(언제든학교 기획단)
편집 박찬선(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평생교육팀)
발행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우만동)
031-248-9700 | <http://learning.suwon.go.kr>